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6월 5일 수요일 제895호

“대학 특성화, 사업·산업에만 치우쳐선 안돼”

해양바이오·아열대생물·IT와 에너지·MICE 특성화… 계획안 30일 공청회서 발표

대학 본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충분히 반영해 계획에 포함할 것”

해양바이오산업, 아열대생물산업, IT융합과 청정에너지, 창의융합 MICE가 제주대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날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교수들은 “이번 특성화 계획이 편향적으로 수립됐다”고 비판했다.

특성화 계획 수립 T/F(태스크 포스)팀은 지난달 30일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특성화 계획(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 발표를 맡은 강기준(연구책임자, 경제학과 교수) 위원은 “선정된 4개의 특성화 분야는 제주대

의 전통과 강점, 제주도의 선도전략 사업, 지역연고사업, 미래성장동력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분야는 TF 팀에서 특성화 선정기준과 9개 특성화 분야를 확정하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성화 분야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상위 4개 분야를 선정했다.

TF 측은 “학문분야의 전문화, 대학 기능의 차별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획부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학 특성화 계획을 만든 이유는 국책사업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에 털피해 우리대학에서 어떤 분야의 특성화가 정말 필요한가를 고민해 이번 특성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특히 특성화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탐라문화 등 제주지역 전통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이번 특성화 계획은 산업과 사업에 치중한 특성화 계획으로 대학의 정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수만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기대어 분야를 선정한 것도 문제이며, 평가 기준도 인문학 분야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회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척도를 세워 연구를 진행하려 노력했다”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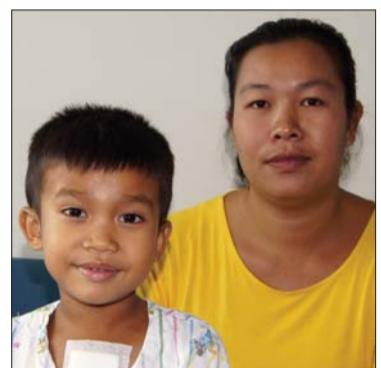
그 외에도 대학 특성화에 있어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이라는 것은 산업을 지향하는 학문적 기반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산업’이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특성화 TF는 지난해 8월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서 특성화 연구를 해왔다. TF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명지 기자

라오스 어린이에 ‘새 생명’ 선물

심장증격결손 수술 성공… 제주대병원·김만덕사업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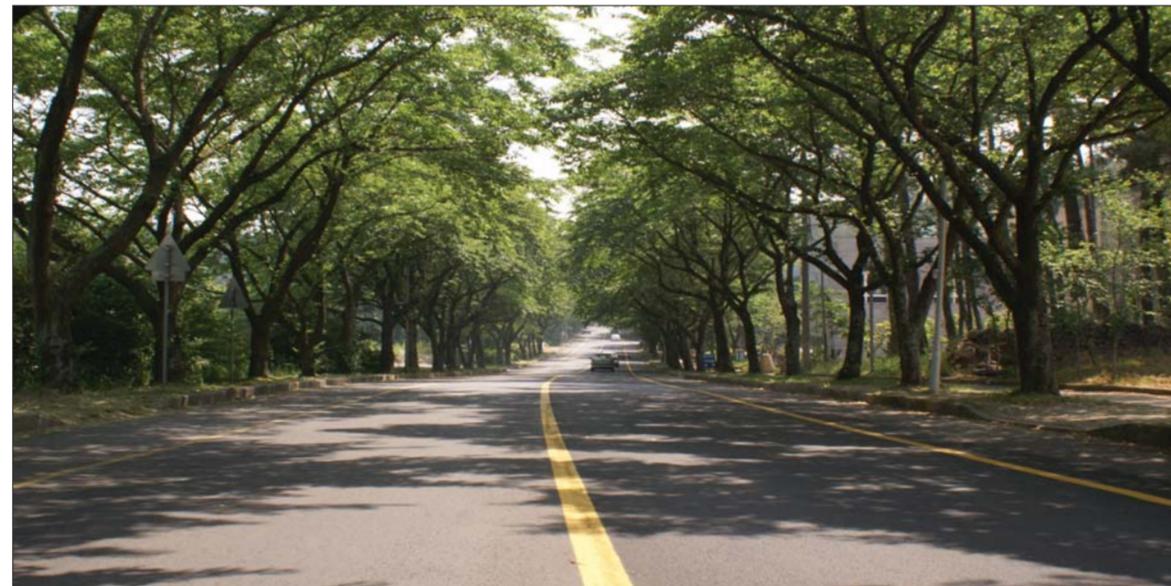
안원(5) 어린이와 어머니 깐시 몬(28)씨

수술비, 체재비 등을 전액지원하면서 성사됐다.

이석재(제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현재는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원의 어머니 깐시 몬(28)씨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심해 수술을 염두내지 못했다”면서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오(새마을중앙회 라오스 현지 집행관)씨는 “마을 주민들과 라오스 현지 당국자들은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살려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면서 “아리해외봉사단과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실증격결손증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칸막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다. 이 병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김명지 기자



숲터널 이룬 제주대 입구 빛나무길 여름을 향해 가면서 제주대 주변 왕벚나무들도 초록빛깔 웃으로 길어입었다. 나무줄기도 쭉쭉 뻗어 맞은편 나무와 맞닿았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부럽지 않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더스틴 명예교수·강태선 회장, 발전기금으로 각각 1억 쾌척

프레드릭 더스틴(제주김녕미로공원 대표·사진 왼쪽) 명예교수와 강태선(주)블랙야크 회장이 각각 1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프레드릭 더스틴 명예교수는 지난 달 27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더스틴 교수는 운영하는 김녕미로 공원은 기업 수익금의 대부분을 제주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2003년



교류수학생 장학금, 외국인교수 연구비, 병원 발전기금 등으로 현재까지 총 5억8334만원의 제주대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앞서 강태선 회장은 지난달 24일

개교 61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1억원을 쾌척했다. 제주대는 강 회장의 발전기금으로 ‘블랙야크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수빈 기자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 TEL 754-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사설

한국어 교육을 진단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는 약 8만7000명으로 최근 10년간 7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5만5000명 이상으로 이들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와 전공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한국어를 기본으로 구사해야 하는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이다. 미국의 외국어협회(FLI : Foreign Language Institute)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권 학자 가장 배우기 어렵다는 제IV그룹(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어는 어순, 조사와 어미, 높임법 등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언어가 외국어 학습의 대상 언어가 될 때 학습 난이도는 언어권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된다.

우리 대학에서도 제주대학교 진학 및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및 교포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13년 기준).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단계별 지도와 함께 문화 체험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실제적 사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여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는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멘토링제, 개인 터너링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언어 교육에서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멘토·멘티 관계나 언어 교사로서의 터너와 학습자 관계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매칭 프로그램은 인간 관계를 통한 언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방식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단지 좋아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의 결과가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통한 한국어 능력의 등급 인정이다. 이를 고려할 때 TOPIK 지원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한 분야이다. 학습의 완결이 어떤 의미에서 평가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분야도 더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할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도 우리 제주대에서 다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는 모든 국가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문화를 교류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류가 끼친 한국어 열풍의 불씨를 각 대학이 다각적으로 살피나가야 하며 국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문화를 알리는 교실 속의 조용한 외교 프로그램이다.

■ 알립니다

■ 바로잡습니다

5월 27일자 7면(제894호 개교기념 특집호) 제주어 낱말맞추기 당첨자는 오는 7월 3일자(수) 제896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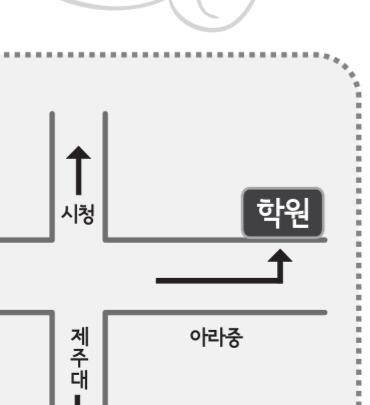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운전 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 교육 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리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학생이 79%”

총학, 청년유니온과 기자회견
“제주에 노동청 설립 필요”



지난달 27일 학생회관 1층에서 유병선 총학생회장, 정하나 국회의원, 전호광 제주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소리 문준영 기자 제공>

간당 4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금과 주거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만 정작 제주 지역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은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제주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100명 중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해 제주 지역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가계부 조사결과 제주 청년들 9.8%가 학자금과 교육비, 주거비 등 생계로 인해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약 6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최저임금 월급여인 101만여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조사결과 도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 79%가 법정 최저임금(시

취업동아리 통해 사회성 키우고 취업률 ‘쑥’

지도교수제에서 멘토제로

멘토 임명식 13일 개최

취업동아리 멘토 임명장 수여식이 오는 13일 오후 7시 제주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과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 각 동아리별 멘토와 학생 등이 참가한다.

종전 취업동아리는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해 조언해 왔지만 현장에서 종사하는 젊은 멘토들의 조

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돋기 위해 멘토제로 바꿨다.

취업전략본부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각 분야 운영 방안을 공유해 취업동아리와 원활한 소통을 할 계획”이라며 “멘토제의 정착과 취업동아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케팅반=전용구(경제학과 2013졸·아메로퍼시픽) △증권반=김승현(관공경영학과 2011졸·신한금융투자) △대기업반=김지수(통신공학과 2012졸·KT) △금융반=송경호(화학과 2011졸·제주은행) △해외취업반=한진이(국제교류본부) △영상반=송현정(언론홍보학과 2013졸·제주영상미디어센터) △무역유동반=채상원(경영학과 2013졸·일동제약) △견습직원반=이창수(취업전략본부) △농협반=오도윤(국어국문학과 2011졸·농협중앙회) △공기업반=고태진(영어교육과 2010졸·JDC) △항공승무원반=강혜정(예수비스교육원 대표)

8월까지 인터넷 전화 도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보통신원(원장 김일환)이 오는 8월말까지 학내 부서 및 학과에 인터넷 전화를 도입한다. 정보통신원은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내 전화화 유선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가 통화품질이 더욱 뛰어나고,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인터넷 전화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JNU 오픈캠퍼스 첫 선... 고교생 150여명 참가

2013 JNU 오픈캠퍼스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실시된 오픈캠퍼스는 대학이 개설한 전공을 미리 체험해 보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10개 학부(과)에 도내 19개 고교생 15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1부·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제주대 동아리공연과 대학

입학전형(입학사정관제 포함) 설명회가 있었으며, 2부에선 참가자들이 신청한 학부(과)로 이동해 학부(과)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2부에선 진행된 프로그램은 △전공 소개와 실험실습 △촬영·편집 기자 체험 △학과동아리 소개 △지도교수와 캠퍼스 탐방 △해양순환 모델 시연 △교수와의 열린 대화 △해조류 다양성 체험 △AM/FM 라디오 수신 실습 등이다.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여자육상 전국대회서 선전

금 1·은 5·동 3개 획득

여자육상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시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8회 전국대학육상 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수정(체육학부 3)씨는 해머던지기에서 43m69를 던져 은메달을 땄다. 임윤희(1)씨는 5000m를 19분11초45, 1만m에서는 41분58초3의 기록으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여자육상부의 강세 종목으로 알려진 1600m 계주에서는 박지선(3), 이기쁨·이지아·남조롬(이상 2)가 한 팀을 이뤄 4분07초57의 기록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진아는 400m 달리기에서 1분00초1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받았다. 남조롬은 8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학생 에세이 쓰기 공모전

신문협회·언론진흥재단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학생 에세이(소평론) 쓰기’ 공모전을 연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주 페이퍼의 후원으로 여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전은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한국신문협회(전화 02-733-2251~2)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열려

정년 퇴임교수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7일 글로벌하우스 2층 글로벌레스토랑에서 열렸다.

개교 6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형우 전 총장, 부민근 전 총장, 신행철(정명회-제주대 명예교수회 회장) 명예교수 등 퇴임교수 40명이 참석했다.

허향진 총장은 명예교수들에게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글로벌하우스 2층 글로벌레스토랑에서 정년 퇴임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사람들

오홍식 교수

정인호 교수

잡지 '이슈메이커'에 실려

로슈종양학술상 수상



정인호(제주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가 지난 2일 '위내시경과 검사와 CT검사를 이용한 수술 전 임상병기 결정의 정확도 및 임상적 의의' 등 과 관련해 발표한 학술논문이 제12회 한국로슈종양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내 유일의 양서피총류 연구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영·김진석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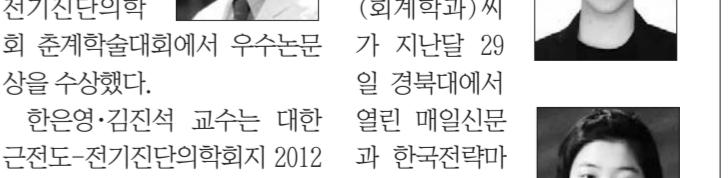


한은영(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원쪽)·김진석(류마티스내과·아래)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위암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은영·김진석 교수는 대한근전도·전기전단의학회 2012년 12월호에 ‘수근관 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초음파 소견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윤현수(경영학과·사진학과)·조나영(회계학과)씨가 지난달 29일 경북대에서 열린 제68회 전국대학육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은영·김진석 교수는 대한근전도·전기전단의학회 2012년 12월호에 ‘수근관 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초음파 소견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은영·김진석 교수는 대한근전도·전기전단의학회 2012년 12월호에 ‘수근관 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초음파 소견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교수시론

이경언
수학교육과 교수

창조적인 문제해결자 되기

세상의 모든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큰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가끔은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듣는 사람은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란 무엇일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수학,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수학에 관심을 둔 수학교육학에서는 문제에는 일반적으로 '목표, 장애요인, 해결자의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한다. 즉, 문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해결 절차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유발하며 이때 해결자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려움을 유발하는 장애요인을 먼저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 모든 문제에는 장애요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장애요인의 크기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장애요인이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 특히 문제를 접했을 때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장애요인만큼이나 문제를 정의하고 한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해결자의 의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자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문제를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폴리아(G. Polya)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지와

자기 조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지의 교육이다. 자신에게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조그만 진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배우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배운다. 만일 학생이 학교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학습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자신의 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치 있고 매력적인 문제를 찾아 새롭게 구성하고 해결해보는 '문제 제기(Problem Posing)'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해결 의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수학교육학자인 브라운과 월터(Brown & Walter)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What if not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 단계는 먼저 기준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속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나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열거한 속성에 대하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What if not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즉, 나열한 속성 중 하나 혹은 일부를 부정하거나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의문을 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생각한 의문을 기초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 만든 문제를 분석하여 풀이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 문제해결, 문제 제기는 수학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수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지면을 빌려 문제와 문제해결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들어놓은 이유는 대학생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문제 해결 경험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 훌륭한 문제해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대학생생활을 시작한 1학년 학생들로부터 곧 졸업을 앞둔 학생들까지 누구나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 활동뿐 아니라 이전의 생활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과 일상에서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문제라는 말 자체가 어렵고 짜증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누가 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전하였으면 한다. 또한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보다 많은 경험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면 어떨까?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점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다면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분석하고 해결해 보는 것을 어떨까?

4년의 대학생 활동 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충분히 하여 강한 의지를 품은 창조적인 문제해결자가 되었으면 한다.

카메라 현장



사슴상 주변 나무벤치 12개 중 3개는 사진처럼 크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6개는 도색 및 수리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강경태 기자

독자기고

특정 영화 스크린 독점 막아야

김성삼
언론홍보학과 4

지난 4월 25일,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라고 꽤 가辩证 '아이언맨 3' 가 한국 땅에 상륙했다. 영화 비수기인 4월에 개봉한 아이언맨3는 비수기가 무색하게 개봉 첫 날부터 42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도 모자라 개봉 후 4일간 아이언맨3를 본 관객들의 수는 무려 260만명이나 되었다.

또한 4월 넷째주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단 4일 만에 웬만한 한국영화의 순위분기점을 간단히 뛰어넘었다. 실제로 엄청난 기록이다. 개봉 5주차를 맞이한 아이언맨3는 어느덧 관객 수 88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에 개봉한 외화인 어벤저스와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관객 수를 넘어서었다. 이 관객수는 지난 2009년에 개봉했던 외화인 '아바타'의 1300만 관객에 이어 외화 영화 2위에 해당한다. 아바타의 기록을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역대 외화 흥행에 있어 손꼽힐만한 업적을 남겼으나 아이언맨3로서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흥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축하해 줄 일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왜 씁쓸한가에 대한 이유로 생각보다 영화가 재미없었나? 그건 아니다. 영화는 충분히 재밌었고, 영화 자체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없었다. 흥행 할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작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면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보였다.

아이언맨3가 흥행 성공에 있어 영화 자체로 훌륭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 요소 중 가장 큰 원인이 극장가의 아이언맨3 도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싶어 본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언맨의 장르인 SF, 액션영화를 선호하지 않음에도 아이언맨3를 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영화관에서 아이언맨3 말고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감상에 자출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영화감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 잡아 이제는 관객으로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활동을 넘어서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정기적으로 영화관을

상술 좋은 기념일은 이제 그만

정희민 / 사학과 2

근래 들어 기념일의 상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종류의 기념일 상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같은 수록 도넘어서는 상술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는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등

이 있다. 우선 14일로 끝나는 기념일은 성 발렌타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눈앞의 이익은 얻게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질' 보다는 '양' 만을 앞세우는 영화만이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 그런 영화들은 관객들의 의면을 반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술의 존재를 알고, 또 느끼고 있지만 기념일에 맞춰 무언

가를 사거나 하는 행동을 계속 하곤 한다. 남에게 보여주는 과시용이든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이 같은 상술에 항상 놀아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일로 이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술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노골화 되어가는 것이다.

또한 부르주아적 심리를 자극하는 70만원 상당의 초콜릿 등 고가의 선물을 상품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서양인들이 13일을 무사히 넘기기로 14일을 축하한다는 설 하나

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기념

일까지는 이러한 점에서 봐줄만 하다.

실제로 우리 삶에 가끔 있는 기념일의 존재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요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디지털아이데이, 뮤직데이, 포토데이, 무비데이, 머니데이 등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념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새로 생

긴 기념일들은 기념일마다 나름의 생활 이유가 있다지만 대부분 상술을 위해 억지로 기워 맞춰서 찍어내듯 만드는 기념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술의 존재를 알고, 또 느끼고 있지만 기념일에 맞춰 무언

동문칼럼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임진철
행정학과 06학번

유럽배낭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이유가 필요했다. 인생은 한 번 뿐이니까.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깐, 뜬금없는 유럽행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준 이 이유들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 보기 좋으라고 덴 핑계에 불과했다. 그저 떠나고 싶었다. 철이 없다 해도, 현실감각이 없다 해도, 중2병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취업이라는 차디찬 현실을 외면하고 제주를 벗어나 색다른 거리를 걷고 싶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싶었고, 사진 속 풍경 속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유럽행 비행기와 유레일패스를 끊고 뿐만 아니라 빠른 카메라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유럽으로 떠났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기차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뷔페, 베를린을 거쳐 체코 프라하, 평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젤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7개국 12개 도시를 돌아다녔다.

언어가 서툴다 보니,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것은 기본이고, 길을 물어놓고는 이상하게 이해해서 엉뚱한 곳을 가기 일쑤였다. 멎도 모르고 사인 해맸다가 돈 내놓으라고 우기는 칵시와 말다툼도 하고, 행색이 너무 궁색했는지 독일에선 칵시로 오인 받고, 비엔나에서 로마로 가는 심야 열차에선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감수성이 터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꼭 슬픈 에피소드만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런던에서 만난 친구를 뮌헨에 있는 호스텔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텅에 가서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며 '바이에른 뮌헨' 팀의 축구경기를 보고, 파리에선 가이드북을 숙소에 놔두고 나오는 바람에 일본인 관광객에게 길을 물어보고 결국엔 친해져서 같이 베르사유궁전까지 동

권하고 싶은 책

나를 바꾸려면 고정관념·편견부터 깨야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청중에게 물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것을 본 교수는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먹에 꽉 쥐어서 꾸기더니 다시 놓았다. "아직도 이 돈을 가지고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교수의 행동에 놀라면서 역시 손을 들었다. 그려 교수는 꾸겨진 지폐를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서 밭로 밟았다. 지폐는 꾸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다. 교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지폐를 갖고 싶은지를 물었다.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그 교수는 힘든 어조로 "제가 아무리 100달러짜리 지폐를 마구 구하고 밭로 짓밟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

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그러니 실패라는 것은 별로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실패 중에서 시험의 실패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가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쓴 *프레임*에서 예시한 프레임의 중요성이다. 책은 7장으로 나뉘었다. 1장 나를 바꾸는 프레임, 2장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3장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4장 현재 프레임과 미래의 차이, 5장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방법, 6장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7장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으로 여태 고정됐던 프레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데 치중한다.

저자는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최인철 저작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시대

프레임

나를 바꾸는 마음의 창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우리 모두가 학문 수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년 전 나온 이 책이 26쇄를 거듭하며 널리 읽히는 까닭은 '프레임'을 통해 인간관계와 세상 배우기에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넘기 때문이다.

» 2013 아라대동제의 열기 속으로



2013 아라대동제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야외음악당 및 메인무대 등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에는 '희망의 거리', 연예인 공연, 각종 주점 및 개인장터가 성황리에 운영됐다. 학생들은 2박 3일에 걸친 대동제를 통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자 노력했다.

그 뜨거웠던 아라별의 열기를 담아봤다.

사진=김동현·강경태 기자/편집=김소영 기자



- 1 희망의 거리'에 놓인 꽃별을 빼곡히 채운 학생들의 열기
- 2 '희망의 거리'에 내밀었던 청춘에게 전하는 응원 메세지를 바라보는 학생들
- 3 특별행사로 진행된 제주 유나이터 선수 펜시안의
- 4 온해 대동제에서 첫 공연을 선보이는 교직원들 구성의 통기타동호회
- 5 '백방 콘페스'에 도전하는 참가자들
- 6 '나도 아라스타'에 참가해 춤을 선보이는 학생들
- 7 암행가수 '긱스'의 공연을 관람하며 열광하는 학생들
- 8 뛰어난 개성과 미모로 무대를 달군 앙가수 '나비자'의 공연 모습
- 9 공연이 끝난 후 물려온 암파로 혼잡해진 정문 배스정류장
- 10 축제가 끝난 다음날 아침, 학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치우는 우리의 어머니



» 2013 아라대동제 이모저모

“제주대의 매년 초청가수는 ‘비’ 죠”

지난달 26일 제주도는 폭풍우로 난리가 났다. 제주시에는 80~150mm의 폭우가 내렸다. 제주대 역시 세찬 비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동제를 위해 3일 전부터 설치해놓은 메인 무대와 천막들이 바람에 날아갔다. 이로 인해 화요일 오전부터 계획되었던 부스 행사들은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다행히 개막식에 맞춰 무대가 설치돼 성공리에 대동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희망의 거리’ 청년들의 고민 해결사

야외음악당과 메인무대가 있는 잔디밭에 설치한 개인장터나 주점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특색은 없었다. 한편 총학생회는 자매국수와 협약을 맺고 수익금을 ‘좋은일만’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다. 벼룩시장으로 얻은 수익금 역시 어린이재단 ‘조록우산’에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대동제를 실현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힘을 주는 멘트나 사진이 담긴 기차 모양의 풋말들이 움팡발 가는 길을 장식한 ‘희망의 거리’가 이목을 끌었다. 학생들에게 꿈의 의미를 되살려주고 흔들리는 청춘을 다잡아주려는 의미로 제작됐다. 하지만 힘들게 설치한 기획물을 만취한 학우들이 파손시킨 탓에 다시 수리해야만 했다. 재탄생한 ‘희망의 거리’는 길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에일리·배치기 합동공연에 앰프 터져

지난달 28일 에일리와 배치기의 합동 무대에서 음향 사고가 일어났다. 음향 사고는 약 10분간 지속돼 관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발전차량을 통해 원상복구됐다. 총학생회는 사고의 원인을 마이크 불륨을 높이거나 노래 도중 앰프가 터져버리면서 누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마이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수들은 노래 ‘눈물사위’를 끝까지 불렀고, 학생들 역시 큰 목소리로 끝까지 따라 불렀다.

아라스타 우승자 ‘다이나민혁 듀오’

아라스타는 총 14팀이 지원했다. 예선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총의 경우 3팀밖에 없어 모두 본선행의 티켓을 끊었다. 심사위원(중앙자치기구 대표)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시간에 가까운 리허설로 긴장이 해소된 점을 좋게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일부는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우승은 ‘다이나민혁 듀오’가 차지했다. ‘다이나민혁 듀오’의 안동성(관광개발학과 휴학생)씨는 “솔직히 다른 팀들이 잘해서 우승을 못할 줄 알았는데 우승해서 더 기쁘다”며 “100만원의 상금은 같이 팀을 이뤘던 형과 절반씩 나누고 50만원을 워킹홀리데이의 여비에 보태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 학우 위해 무대 앞 자리 마련

장애학우들이 맨 앞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특별히 배려했다. 이 덕분에 장애학우들은 불편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총학생회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동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셋째날 공연을 한 ‘긱스’의 뿌이는 장애학우들과 악수를 해주기도 하며 함께하는 대동제를 만들었다.

“날마다 연예인 공연 필요한가”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아라대동제에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8800만원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대의 연예인 섭외 비용은 전북대에 이어 2위를 차지.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제주도는 거리나 숙박 등의 이유로 타 지역보다 연예인을 부르는 비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3일 동안 매일 연예인 공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 “도움 준 사람들에게 감사”

총학생회에서는 대동제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장을 발표했다.

“처음에 대동제를 구상할 때는 클럽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대안으로 DJ를 이용해 DJ 파티 형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이 주체가 돼 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동제와 관련된 총학생회 사업 예산공개는 하반기 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학우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번 대동제는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느끼지만 날씨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대동제를 기획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김동현 기자

